



우리회사 대표상품 | 계성제지 '트리파인 아르누보지'

## 최고급 무광택지, 특수지 시장 새바람

계성제지그룹(회장 최낙철 /www.kyesung.co.kr)은 올해로 종이 외길 3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36년간 철저한 장인 정신으로 오로지 종이 하나로 꾸준히 업계를 리드해 오고 있는 계성제지는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지종들을 대거 시장에 선보였다.

이미 오래 전에 잉크젯 용지를 개발하여 98년 10월 특허청에서 고풍택 인터렉 용지의 제조 설비 및 기술 특허를 획득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이 제품으로 과기처에서 주는 KT마크도 받은 적이 있는 계성제지는 2004년 수입지류 무관세 시대를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수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루브지(Bantnouveau)와 덜(Dull)지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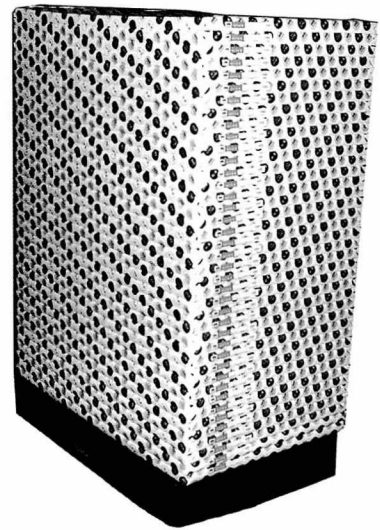
고급화보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반루브(Bantnouveau)지' 대체품으로 개발된 '트리파인 아르누보(TRI PINE ART NOUVEAU)'는 종이 본래의 촉감과 느낌을 가지면서 뛰어난 인쇄적성을 지닌 최고급의 매트지(무광택지)다.

사람이 느끼는 시각과 촉감 및 인쇄 후 귀족 같은 자태로 고급 화보집, 예술 작품집, 고급 카탈로그 등의 용도로 시판되고 있다. 또 하나의 개발품 '트리파인 덜(TRI PINE DULL)지'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스노우 화이트(Snow White)지보다 품질을 더 고급화한 제품이다.

백지 부분은 매끈함이 있으면서도 차별한 매트 질감을 갖고 있으며, 인쇄부분은 품위, 부드러움, 깊이가 있어 자연스런 광택이 있는 색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밝은 조명 아래서도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각적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는 지류이다.

기존에 반루브지(Bantnouveau)는 일본에서, 덜(Dull)지는 독일에서 연간 1,000씩 수입되어 국내에 시판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계성은 기존 수입지 사용처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1년 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01년 4월 국내 최초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지류 개발을 완료했다.

계성의 신제품들은 현재 홍보용 홀더나 전시회 등에 납품되고 있다. 이외에 2001년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된 시티(City)지는 고풍택을 요구하는 자



동차, 향수, 보석, 민속주용 카탈로그 등 고급 카탈로그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고급 화보시장 및 일본 시장에 판매가 기대된다. 그리고 2000년에 이미 시판되었던 벨벳 크림(Veilet Cream)지도 미려한 색상으로 고급 켈린더 시장에서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신제품들은 금년 5월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 호주, 미국, 홍콩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속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계성의 신제품 판매에 활력을 불어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광륜 차장>